

본격적인 배꽃 개화기에 수분(受粉, 종자식물에서 수술의 화분을 암술머리에 옮겨 붙는 일)에 나선 전남 지역 과수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기후위기와 꿀벌 감소 현상으로 과수농민들이 배꽃 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배 값이 연일 무섭게 치솟아 '금값'이 되고 있는데 내년 출하 물량 감소로 소비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농민들의 고민이다.

7일 농산물유통정보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에서 '신고배' 상품 기준 10개가 4만 6300원에 판매됐다. 전년도에는 2만 8100원이었지만 1만 8000원 가량 치솟은 것이다.

배값이 치솟은 이유는 냉해가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농민들은 기후위기로 사라진 꿀벌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냉해로 수확량이 줄고 있고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서 꿀벌이 사라짐에 따라 추가 비용이 더 들게 돼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꿀벌을 매개로 한 자가 수분이 불가능해 양봉농가에서 꿀벌을 사오거나 직접 인공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꿀벌 가격이 과거에 비해 3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이다.

# 꿀벌 '실종 시대' 배농가 'Bee명'



일부 과수 농민들은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직접 수술 화분 가치를 들고 직접 수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배는 과일나무 특성상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묻게 하는 '수분' 과정을 통해 열매를 맺는다. 과거에는 꿀벌이 많아 자연수분이 이뤄졌지만, 최근 몇년간 꿀벌이 사라져 인공수분을 하지 않으면 배가 열리지 않는다는 게 농민들의 말이다.

46년째 영암에서 배 농사를 짓고 있는 황인춘(85)씨는 "지난해에는 이상기온 때문에 배맛이 빨리 피었다가 냉해로 수확량이 줄어 가격이 올랐다"

기후 위기에 해마다 꿀벌 감소 배꽃 수분 어려움 겪으며 울상  
벌통·인공수분 장비 가격 올라  
수확량 줄어들며 배값이 '금값'  
나주·영암 등 배농가 접시름

면서 "올해도 수분 기간에 잦은 비로 수분이 안되고, 수분을 위한 꿀벌도 줄어들어 꿀벌을 사오지 않으면 농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올해도 진도에서 꿀벌 10통(1통 4만 마리)을 구매했다. 지난해만해도 한 통에 15만원이던 벌통은 올해 40만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다.

실제 약제 처리로 인한 여왕벌 산란 문제, 응애(꿀벌 전염병을 일으키는 해충), 기후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광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4월 기준 지역 벌꿀 농가 168곳 중 156곳에서 꿀벌이 사라지는 피해를 입었고 전남 역시 2169곳의 벌꿀농가 94%를 웃도는 2042곳에서 같은 피해를 입었다.

신고배의 경우 장비를 이용한 인공 수분도 가능 한데, 인공수분 장비 가격이 25%가량 올라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나주에서 20년간 배 농사를 짓고 있는 김성보(56)씨는 "꽃이 만개하는 4월이면 냉해와 수분이 걱정이고, 여름이 되면 태풍까지 어김없이 들이닥치니 배 농사 짓기 여간 힘든 게 아니다"고 고개를 저었다.

전문가들은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 품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신고 외에 다양한 품종을 식재해야 한다고 조언 하지만, 농가에서는 키우던 과수를 뽑고 새로운 품종을 키우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직접 나서 수확량 감소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 연구센터 관계자는 "올해 배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지난해 냉해와 꿀벌 감소 등 이상기후 영향이 크다"며 "농가도 기후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품종에 관심을 갖고 정부는 농가 지원책을 폭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님의 가게 막은 공유자전거 7일 오전 광주시 동구 동명동 상가 건물 앞에 공유자전거 등이 무분별하게 세워져 있어 차량 통행이나 시민들의 보행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풍영정천 물놀이 초등생 2명 익사 사고 향소심서 "부모도 50% 책임 있다" 판결

광주시 광산구 풍영정천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생 2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향소심 재판부가 학부모와 광주시에 각각 절반씩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광주시에 60%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향소심에서는 부모의 책임을 50%로 인정했다.

광주고법 민사3부(고법판사 이창한 고법판사)는 초등생 2명의 유족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향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족 4명에게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유족은 2021년 6월 광주 풍영정천에서 익사한 초등학생의 부모와 형제이다.

1심에서 인정된 4억 6000여만원 보다 1억 3000여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유족 측은 "하천 관리주체인 광주시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하천을 따라 공원·산책로 징검다리 조성돼 있고 인근에 학교와 아파트가 밀집돼 있어 시민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고 어린이의 경우 익사 사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예견 할 수 있다"면서 "사고가 발생한 징검다리 인근은 수심이 20~40

cm로 깊지 않으나 약 15m정도 벗어나면 수심이 1~2m로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음에도 광주시는 깊은 수심을 알리거나 물놀이를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사고를 대비 할 수 있는 구조장비도 비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모들도 초등학생인 피해 자녀들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 물놀이를 하지 않도록 할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광주시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다.

향소심 재판부도 같은 지적을 내놓으면서 "광주시가 사고 방지를 위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초등학교 3학년인 피해 학생들이 휴일인 당일 최소 1시간 이상 이 장소 주변에서 놀고 있었음에도 학생들이 이외에는 부모들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부모들의 과실 책임을 좀 더 높게 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5·18 도청 사수' 고 이종기 변호사 계엄법 위반 무죄

'5·18 수습대책위원회' 수습위원으로 마지막까지 옛 전남도청을 사수했던 고(故) 이종기 변호사가 49년만에 계엄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동욱)는 이 변호사의 재심선고 공판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변호사 시절 토지 관련 횡령죄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징역 1월)를 유예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969년 8월 30여명이 모인 장흥읍 한 산장에서 개최한 정기 총회 모임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비판을 하는 등 1972년까지 3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정권을 장악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 변호사는 계엄 포고령 1호 위반 혐의로 1974년 광주지법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해 1975년 7월 형이 확정됐다.

광주지법(공공수사부)는 계엄포고령 1호가 위헌·무효판결이 나와 유죄가 확정된 이 변호사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5·18 당시 '5·18 수습대책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았고, 1980년 5월26일 계엄군의 광주 재진입을 막기 위해 일명 '죽음의 행진'에 참여했다. 이날 밤 다시 옛 전남도청으로 가는 것을 말리는 아내에게 이 변호사는 "어찌 모르는 척할 수 있느냐.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집을 나선 뒤 27일 계엄군에 붙잡혀 일주일 후에 풀려났다. /정병호 기자 jusbh@

## '긴급조치 9호 위반 구금' 위자료 소송 향소심도 승소

군 복무 시절 박정희 대통령의 시가 교과서에 실린 것을 두고 전제 군주에 빗대 비판하는 편지를 써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금됐던 황주홍 전 국회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향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3부(고법판사 이창한)는 황 전 의원과 형제 자매를 포함한 총 5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향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 전 의원 등 5명에게 3억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황 전 의원은 행정병으로 복무하던 지난 1976년 4월 20일 지인에게 보낸 편지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에 기초한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6월 전교사보통근법회의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410일간 구금됐다.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철폐와 정권퇴진을 촉구

하는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토대로 발동한 특별조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2013년 긴급조치 9호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각각 위헌·무효 결정을 내렸다.

황 전 의원은 이를 토대로 재심을 청구해 2014년 무죄를 선고 받고 형사보상금 8500여만원을 받은 뒤 지난해 2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향소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2022년 8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긴급조치 9호의 발령 등으로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전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법률적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2022년 8월부터 소멸시효가 시작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사건이 발생한 징검다리 인근은 수심이 20~40cm로 깊지 않으나 약 15m정도 벗어나면 수심이 1~2m로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음에도 광주시는 깊은 수심을 알리거나 물놀이를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사고를 대비 할 수 있는 구조장비도 비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낚시배·양식장 관리선 충돌 고흥 앞바다에서 3명 부상

고흥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어선이 부딪혀 낚시어선 승선원 3명이 다쳤다.

7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남 오후 6시 20분께 고흥군 도양읍 시산도 해상에서 낚시어선 A(9t·승선원 17명)호와 양식장 관리선 B(14t·승선원 4명)호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호 타고있던 낚시객 3명이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A호는 선체 오른쪽 선미 부분이 파손됐으며 B호는 큰 피해 없었다. A호 승선원은 경찰에 "항해 중 B호가 갑자기 옆쪽에서 들어와 충돌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운항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호희,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일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1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문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